

MZ세대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가사노동 가치관 및 성역할 태도를 매개하여*

정 명 용[†]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미혼 MZ세대 237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여 개인주의적 성향이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가사노동 가치관과 성역할 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MZ세대의 개인주의적 성향, 가사노동 가치관, 성역할 태도, 출산의도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주의 성향은 출산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가사노동 가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사노동을 가치있는 행위로 인식할수록 출산의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단순히 MZ세대의 개인주의적 성향과 같은 표면적인 가치관 변화로 설명되기보다는 가사노동과 같은 사회적 인식 및 문화적 요인이 보다 본질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출산을 제고를 위한 정책은 표면적 가치관보다는 이를 매개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주목해야하며, 이에 대한 구조적 개입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요어 : MZ세대, 개인주의적 성향, 출산의도, 가사노동 가치관, 성역할 태도

* 이 논문은 2025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정명용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 정명용,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Tel: 02-2173-2114, E-mail: happy_ong0@naver.com



Copyright ©2025,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현대 사회에서 출산을 저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OECD, 2023). 이와 같은 현상은 노동력 감소, 경제 성장 둔화, 사회복지 비용 부담 증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통계청, 2025). 이에 따라 정부는 보육, 주거, 경제적 지원 등 물리적·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왔으나, 이러한 접근이 실질적인 출산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신윤정 외, 2023).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출산에 대한 개인의 결정 과정을 구조적 요인에 국한하지 않고 개인의 심리적 특성, 가치관, 삶에 대한 태도 등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탐색할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선행연구들(Philipov, 2009; Ajzen & Klobas, 2013)은 출산의도를 단순히 사회적 기대의 수용이 아니라 개인의 인식, 계획, 태도에 기반한 의사결정 행위로 규정하며, 자율성, 성평등, 자기효능감 등 심리적 변인이 출산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최근 국내에서 수행된 여러 실증연구들은 이러한 관점을 보다 정교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년층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결혼 및 출산 결정에 밀접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김석호, 2022), 회피애착과 공정성 인식과 같은 심리사회적 변인이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진경선, 2020). 또한, 결혼 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산의향이 증가하며(은선경·박효진, 2020), 자녀에 대한 태도보다 출산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출산 계획 및 임신 행동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신윤정 외, 2020). 이처럼 개인의 심

리적 요인들은 출산 결정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며, 최근 연구결과는 출산을 저하 문제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통계청(2024a)의 인구전망에 따르면, MZ세대는 현재 가임기의 중심 세대로 전체 출생아의 약 95%가 이 세대에서 태어나고 인구 구성비 또한 약 25%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의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향후 10년 이상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와 정책 방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출산의도와 관련한 MZ세대의 심리적 특성과 가치관, 삶에 대한 태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출산 정책 또한 경제적 지원에 편중되어 실질적인 출산 행동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 기존 연구들은 개인주의, 성역할 태도, 가사노동 가치관 등과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을 개별적으로 다루거나 단편적인 상관관계에 머무는 경향이 있어, 출산의도를 설명하기 위한 보다 통합적이고 이론적 및 실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장승희, 2014).

이에 본 연구는 개인주의 성향, 가사노동 가치관, 성역할 태도라는 주요 심리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MZ세대의 출산의도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고유한 세대 정체성과 가치구조를 반영한 설명모형을 구축하여 출산의도 형성과정을 보다 정밀하게 이해하고자 한다. 개인주의 성향이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이론적으로 구조화하면서, 성역할 태도와 가사노동 가치관을 매개변인으로 포함한 분석은 국내외에서 아직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로, 가사노동 가치관과 성역할 태도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독립변수인 개인주의 성향과 종속변수인 출산 의도 간의 직접 경로를 배제한 완전매개모형(full mediation model)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두 매개변인을 중심으로 한 심리사회적 경로를 구조모형으로 설정하고, 간접효과의 구조적 작용을 정밀하게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MZ세대의 개인주의 성향은 출산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가사노동 가치관과 성역할 태도는 개인주의 성향과 출산의도 간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연구문제 3. 완전매개모형이 통계적·이론적으로 적합한 설명력을 갖는가?

MZ세대의 개인주의적 성향

MZ세대는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정의한 1980년부터 1996년까지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s)인 M세대와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 두 세대를 명확히 구분하기보다 1980년부터 2004년 사이 출생자를 하나의 통합 세대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MZ세대'로 지칭한다. 이 용어는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트렌드MZ 2019』 보고서를 기점으로 대중화되었으며, 디지털 환경과 사회문화적 전환이 중첩된 시기에 성장한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Prensky, 2001).

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정보 접근성, 실시간 소통, 자기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며 전

통적 위계나 외부 규범보다 자신의 판단과 선호에 따라 삶을 계획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Twenge & Campbell, 2008; Sadiku & Musa, 2017). 이러한 특성은 자율성, 독립성, 자기결정성과 같은 개인주의적 가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제로 작용하며 MZ세대를 설명하는 핵심 심리사회적 특성으로 개인주의 성향이 주목된다(Triandis, 1995).

개인주의 성향은 세대 간 가치관 차이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해 왔다. 최상진(2000)과 Shim, Kim, & Martin(2008)은 한국 사회가 전통적으로 강한 집단주의 문화를 형성해 왔으나 산업화와 세계화, 도시화 등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점차 개인주의적 가치로 전환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해진과 이동훈(2021)은 연령이 낮을수록 자기결정성과 독립성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분석하였으며, 박혜경과 김상아(2018)는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개인주의 확산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특히 박혜숙(2016)은 MZ세대가 정보기술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며 독립적인 생활양식을 추구한다고 보았고, 손정희 외(2021)는 이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자율성과 개성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고 분석하였다. 박순형(2022)은 '플렉스', '미닝아웃' 등 소비문화의 확산을 통해 MZ세대의 개인주의적 감수성이 문화적 실천으로 나타난다고 보았으며, 김수정(2019, 2022)은 이들이 물질적 안정

1) 플렉스는 1990년대 미국 힙합 문화에서 유래하여, 명품·고가 소비를 공개적으로 과시하며 개인의 존재감과 지위를 표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최재정, 2022).

2) 미닝아웃은 개인의 정치·사회적 신념과 가치관을 소비 행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윤리적 기업 지지와 불매를 포함한 가치 소비를 뜻한다(김형석, 2022).

보다 삶의 질, 사회적 신뢰, 관계의 진정성을 중시하며, 공정성과 자율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개인주의 성향은 결혼과 출산 등 제도적 이행에 대한 태도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김성엽 외(2023), 진미정(2021)과 최효미 외(2016)는 MZ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더 이상 필수적인 인생의 단계로 인식하지 않고, 자율성과 가치 판단에 따라 선택 가능한 삶의 방식으로 여긴다고 보고하였다. 실제로 통계청(2023)의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10년 전 대비 20.1%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민과 조성봉(2024)의 연구 역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결혼 의향이 낮아진다고 보고하며, 이러한 경향은 단순한 태도 차원을 넘어 삶의 제도적 결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가치 전환임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MZ세대의 개인주의적 성향은 디지털 기술, 가치 전환, 제도에 대한 선택적 태도라는 환경 속에서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공동체 중심 문화에서 개인 중심 문화로의 이행이라는 구조적 흐름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세대적 특성을 반영하여, MZ세대의 개인주의 성향이 출산의도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가사노동 가치관 및 성역할 태도와의 매개 경로를 통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개인주의 성향의 심리사회적 작용 기제를 보다 정교하게 탐색하고자 한다.

가사노동 가치관

가사노동은 전통적으로 가족 내 구성원이 수행하는 비임금 노동 활동을 포괄하며, 그 범위에는 청소, 요리, 세탁 등의 일상적 작업 뿐만 아니라 정서적 돌봄, 건강 관리, 시간 조율 등 가족의 삶의 질과 복지를 유지·재생산하는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다(김진욱, 2005; 김경희, 2012). 이는 단순한 반복노동이 아니라 감정노동과 관계적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복합적 작업으로, 가족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문화적 가치 전승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윤숙현·문숙재, 1997).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는 20세기 중반부터 학문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며, Reid(1934), Beutler와 Owen(1980), Chadeau(1985) 등의 연구를 통해 시장경제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적 활동으로서 그 경제적 기여가 인정받아 왔다. 또한, 문화적 요인과 경제적 지원이 가사노동 분담에 영향을 미치며(Davis & Greenstein, 2004),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이후 가사노동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사회구조 및 성별 분업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차성란, 1997).

최근에는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관이 성역할 태도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통계청(2020)의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전통적 성역할 인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평등주의적 인식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가사노동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약화와 함께 평등한 분담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에게 가사노동이 집중되어 있는 현실은 행동 변화가 인식 변화에 비해 더딘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가사노동 가치관 형성에 있어 성역할 태도는 핵심적인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평등주의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개인일수록 가사노동을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가사노동 가치관은 단지 개인의 태도나 성향에 그치지 않고, 출산의도와 같은 삶의 중요한 의사결정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천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조아라(2018)와 은선경·박효진(2020)의 연구에서는 남편이 가사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여성의 출산의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과 가사노동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은 출산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사노동 가치관은 단순한 생활 태도를 넘어 젠더 평등, 가족 구조 변화, 출산을 저하 등의 사회적 이슈와 깊이 연결된 분석 단위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자율성과 평등을 중시하는 MZ세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가치관을 매개로 한 출산의도 분석은 세대별 차이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성역할 태도

성역할 태도란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을 의미하며, 이는 생물학적 성별에 의해 고정된 것이 아닌 사회화 과정을 통해 학습된 결과로 형성된다(Blee & Tickamyer, 1995; Eagly & Wood, 2012; 이윤주, 2018). 다시 말해 성역할 태도는 특정 사회문화적 맥락과 시대적 배경 속에서 개인이 내면화한 성별 기대의 인식 구조로, 개인의 성정체성뿐 아니라 사회적 행동양식을 이

끄는 중요한 문화적 기제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는 남성의 생계 책임과 여성의 가사·양육 담당이라는 이분법적 역할 분담을 전제로 하여 이를 정당화하는 반면, 평등주의적 성역할 태도는 남녀가 직장가정 영역 모두에서 동등한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신념에 기반한다.(Gibbons et al., 1997; Brooks & Bolzendahl, 2004). 성역할 태도는 사회적 역할이론(Eagly & Wood, 2012)에 따라 시대와 정책, 문화적 기대 등 외적 요인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는 특성을 지닌다. 실제로 성역할 태도는 성별뿐만 아니라 연령, 교육 수준, 종교, 직업, 혼인 여부 등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Harris & Firestone, 1998),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전통적인 태도, 연령이 낮을수록 평등주의적 태도를 갖는 경향이 나타난다(Spence et al., 1982; Rice & Coates, 1995).

한국 사회에서도 성역할 태도는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책과 제도, 문화적 맥락에 따라 영향을 받아왔다. 김사현(2015)은 가족정책의 현금, 시간, 서비스 기반 지원이 성역할 태도를 보다 평등하게 변화시킬 수 있으나,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시간 정책은 오히려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백주희(2009)는 국제 비교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가 미국, 스웨덴, 일본에 비해 가장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황동진(2020)은 정책 중 현금 지원이 성역할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역할 태도는 가사노동 참여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임은정·홍백의(2019)의 연구에 따르면,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남성은 가사노동 참여가

현저히 낮고, 평등주의적 태도를 가진 경우에는 아내의 태도에 따라 참여 수준이 달라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지영(2021)은 평등주의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여성의 분담이 과중할 경우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고하였다.

결국 성역할 태도는 결혼과 출산, 양육, 직업 선택 등 삶의 주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이며, 특히 출산의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 구조적 변수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성역할 태도가 개인주의 성향과 출산의도 사이에서 어떤 매개적 작용을 수행하는지를 구조모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MZ세대의 성역할 인식이 출산의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정책적·사회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출산의도

출산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생물학적 과정이자, 인간의 재생산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현상이다(Sandu et al., 2020). 이 과정은 단순히 생물학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의 생애 주기에 있어 심리적·사회적·경제적 의사결정이 복합적으로 얽힌 중요한 전환점으로 간주된다(최보람, 2021). 이러한 맥락에서 출산의도란 향후 출산에 대한 개인의 의사, 욕구, 계획 또는 생각의 정도를 의미하며, 실제 출산행위를 예측하는 핵심적인 선행요인으로 작용한다(Schoen et al., 1999).

출산의도는 단순한 기대로 축소하여 해석되지 않는 인지·행동적 판단으로(이명진, 2022), 개인의 가치관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조건과

제약요인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이해될 수 있다(Kantner, 1952). 출산의도를 형성하는 핵심 인지요인으로 출산에 대한 긍정적 태도, 사회적 지지 및 통제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제시하며(Ajzen & Klobas, 2013), 개인의 의사결정은 정서적 요소뿐 아니라 환경적 자원과 조건에 대한 인식에 따라 조정된다(Song et al., 2018). 실제로 연령, 혼인 상태, 자녀 수, 교육 수준, 소득, 주거 안정성 등은 출산계획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이며(조성호 외, 2019), 특히 청년층의 경우, 경제적 불안정성과 고용 및 주거 불안은 결혼과 출산의 지연에 밀접하게 연관된다(김성엽 외, 2023; 김일옥·정구철, 2015). 또한 미래에 대한 낙관성, 자녀 양육에 대한 기대, 정서적 유대감 등은 출산의지를 자극하는 심리적 자원으로 작용하며(김석호, 2022; 변두영, 2015; 진경선, 2020), 결혼 만족도와 가족관계의 질 또한 출산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경숙 외, 2009; 은선경 & 박효진, 2020). 더불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와 수용성 역시 출산의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며, 육아휴직, 출산휴가, 보육 시설 지원 등의 제도는 긍정적 출산결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보라, 2020; 신윤정 외, 2020).

따라서 출산의도는 다양한 심리적·사회문화적 요인과 결합된 다층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출산을 제고를 위한 정책 역시 경제적 인센티브에 국한되지 않고 가치 전환과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MZ세대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출산의도를 둘러싼 심리사회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보다 정밀하게 규명하고자 한다.

개인주의 성향과 가사노동 가치관 · 성역할 태도 간의 관계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타인의 기대나 사회 규범보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며, 자신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행동하려는 경향이 크다(Triandis, 1995; Hofstede, 1980). 이러한 성향은 사회문화적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기결정성을 우선시하는 태도로 이어지며, 가사노동과 성역할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개인주의 성향을 지닌 사람은 가사노동을 외부 규범에 따른 의무가 아닌 자발적 선택의 결과로 인식하고,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려는 경향이 있다(Triandis, 1995; Bianchi et al., 2000). 가사노동 가치관이 높다는 것은 이를 단순한 전통적 역할이 아닌 경제적 · 사회적 기여를 포함한 의미 있는 활동으로 보는 것으로, 개인주의적 태도와 정합성을 가진다. 특히 이순미와 김혜경(2008)의 연구는 자율성과 자기결정성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강화된다고 보았다.

또한, 개인주의 성향은 성역할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회역할이론(Eagly & Wood, 2012)에 따르면, 성역할에 대한 인식은 생물학적 요인보다 사회문화적 기대와 개인의 역할 해석에 의해 형성되며 이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성별에 따른 고정된 역할보다 개인의 선호와 능력에 기반한 역할 수행을 선호하게 만드는 배경이 된다. Twenge와 Campbell(2008)은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s)와 같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세대가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에 동의하지 않으며 성평등적 가치에 더 개방적이라는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개인주의 성향이 고정된 성역할 인

식을 약화시키고, 개인의 자유로운 역할 선택을 지지하는 성평등적 태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개인주의 성향은 가사노동을 가치있는 활동으로 재해석하게 하며, 동시에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거부하고 역할 수행의 기준을 개인의 선택과 능력에 둔다는 점에서, 가사노동 가치관과 성평등적 성역할 태도 형성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기반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각 변인들과 출산의도 간의 관계

MZ세대의 개인주의 성향은 출산을 개인의 선택 또는 자기실현의 일부로 인식하게 만든다. 이삼식(2006)은 출산을 개인의 자유 의지로 인식하는 태도가 강해질수록 출산율이 감소한다고 보았고, 전은화(2014)는 미혼 남녀의 자유시간 확보 및 자아실현 욕구가 출산 의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상미(2015)는 경제적 여건, 가족 가치관, 가사노동 환경 등과 같은 요인이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시간이 흐를수록 출산의도가 '있다'에서 '없다'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가사노동 가치관은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실천적 요인으로 기능한다. 조아라(2018)와 은선경 · 박효진(2020)은 남편의 적극적 가사노동 참여가 여성의 출산의도를 높인다고 보고하였고 장한나 · 이명석(2013)은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와 이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출산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노동 분담을 넘어서 심리적 만족과 인식이 출산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성역할 태도는 출산의도를 설명하는 심리문화적 변수이다. 정아름(2018)은 진보적 성역할 태도를 지닌 여성이 전통적 태도를 가진 여성보다 더 높은 출산 의지를 보인다고 분석하였고, 반대로 Kato.T(2018)는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이들이 자녀 출산 의향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장하나·이명석(2013)은 성평등적 태도의 여성이 더 긍정적 출산 결과를 보였고, 김진현(2020)은 양성평등 인식과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 출산 경험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제시하였다.

방 법

연구모형

본 연구는 독립변수인 개인주의 성향이 종속변수인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정함에 있어, 직접경로를 제외한 완전매개 모형(full mediation model)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다음의 이론적 근거와 분석적 검토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첫째, 이론적 정당성에 기반한 결정이다. 기존 선행연구에 따르면 개인주의 성향은 출산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개인이 내면화한 가치관과 태도 같은 심리사

회적 매개요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강하다(Schwartz, 1992; Ajzen & Klobas, 2013; 진경선, 2020; 은선경·박효진, 2020; 신윤정 외, 2020; 김석호, 2022). 즉, 출산이라는 복합적 의사결정은 단일한 가치 성향에 의해 곧바로 형성되기보다는, 해당 가치가 구체적인 생활 태도나 역할 인식으로 전환된 과정을 거쳐 행동 의도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매개변수를 경유하는 경로를 중심으로 한 모형 설정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둘째, 경험적 구조 탐색의 필요성에 따른 분석적 판단이다. 초기모형에서는 개인주의 성향에서 출산의도로 향하는 직접경로를 포함한 구조모형을 설정하였으나, 분석 결과 해당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매개변수들을 중심으로 한 간접경로만을 포함한 완전매개모형을 구축하고 적합도 지표를 비교한 결과, 이론적 설명력과 통계적 적합도 모두에서 더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고전적 매개효과 검증 절차뿐만 아니라, 최근의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기준에서도 간접효과 중심의 완전매개구조가 이론과 데이터의 일치도를 높이는 방향임을 시사한다.

셋째, 완전매개모형은 이론의 검증력과 설명력을 강화하는 분석 전략으로 기능한다.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형에 포함할 경우, 경로 해석의 설명력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Hayes, 2018). 반면, 이론적 연계성과 통계적 유의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완전매개모형은 변수 간의 인과구조를 더욱 명료하게 설명한다. 특히 간접효과가 구조적으로 핵심적인 설명력을 갖는 경우, 그 경로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적 유용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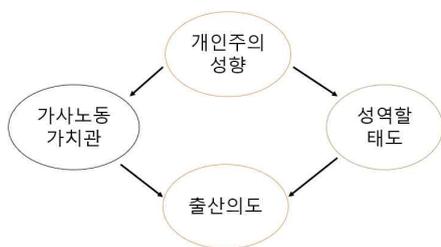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따라서 본 연구는 이론적 타당성, 경험적 적합성, 그리고 모형의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개인주의 성향과 출산의도 간의 관계에서 가사노동 가치관과 성역할 태도를 매개로 하는 완전매개모형을 최종 분석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의 미혼 20·3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270명의 응답이 최초 수집되었으나, 이 중 기혼자이거나 연령이 40세가 초과한 응답자 33명은 표본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37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최종 분석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50명(21.1%), 여성 187명(78.9%)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8.61세(SD = 4.73)였다.

본 연구에서는 출산의도를 형성하는 개인의 가치관과 심리사회적 요인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미혼 MZ세대를 중심으로 연구대상을 설정하였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 간의 합의나 관계적 맥락이 이미 형성되어 있어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될 수 있지만, 미혼자는 외부 간섭이 비교적 적어 출산의도에 대한 개인 내적 동기가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Ajzen & Klobas, 2013). 또한, 20·30대는 전국 출생아의 약 95%를 차지하는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연령층으로(통계청, 2024b), 미혼 MZ세대는 출산율에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기여하는 핵심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분석되었다. SPSS 27.0을 사용하여 각 척도들의 내적 신뢰도 계수를 확인하고 기술통계 및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AMOS 26.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 및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SEM)을 수행하였으며,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변수 간의 복잡한 인과 관계와 잠재 변수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으며 추정오차를 고려한 정교한 모델링으로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최창호·유연우, 2017).

측정도구

개인주의 성향

개인주의 성향은 한유화와 정진경(2007)이 개발한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개인주의적 성향 요인(individualistic orientation factor)’을 바탕으로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개인이 자신을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며, 구체적으로는 자기주도성, 자기효능감, 독립성 등의 심리적 특성을 반영한다(라미진, 2022).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에 대한 의존보다는 자율성과 자기결정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측정 방식은 자아존중감의 하위 개념으로서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갖는 심리적 의미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특히 독립적 자기개념(independent self-construal)³⁾ 및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⁴⁾과 개념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Triandis, 1995). 이는 개인의 삶을 타인의 기대나 집단의 규범보다 자기 목표와 선택에 따라 이끌어 나가려는 경향성을 설명하는 데 유효한 척도이며, Moza et al. (2021)의 문화심리학적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개인주의적 자기개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본 척도는 MZ세대의 세대적 특성과 밀접한 구조적 연관성을 가진다. MZ세대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성장하며, 정보 접근의 자율성, 자기표현의 자유, 그리고 다양한 정체성의 공존을 자연스럽게 경험한 세대로, 타인과 동일하게 보이거나 사회적 기준에 맞추는 것보다,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원하는 사람이나 상황과 선택적으로 관계를 맺는 데 더 큰 가치를 두는 경향을 보인다(진미정, 2021). 이러한 특성은 개인의 독립성과 자기결정성을 측정하는 본 척도와 이론적으로 정합성을 이루며, 이는 본 척도가 이론적으로 설정된 개념을 연구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측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중인과 박범순(2014), 김지영과 윤태환(2017)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대표 문항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의 일을 스스로 한다.”이며, 이는 자율성 및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 개인주의 성향의 정도를 측정한다. 원 척

도의 문항 간 신뢰도(Cronbach's α)는 .73이었으며(한유화·정진경, 2007), 본 연구에서는 .80으로 확인되었다.

가사노동 가치관

가사노동 가치관은 문숙재(1991)의 연구를 바탕으로 남순환(2002)이 활용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태도(6문항), 사회적 가치(6문항), 경제적 가치(4문항)의 총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정말 그렇다)로 평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사노동을 사회적·경제적 가치 행위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문숙재·윤소영(1997)은 가사노동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정책 반영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문항을 사용하여 척도의 타당성을 확장해 바 있다. 또한, 장운옥(1992)은 가사노동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사회적 기능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흐름은 본 연구에서 활용한 가사노동 가치관 척도가 문숙재(1991)의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형성된 측정틀이라는 점에서 이론적 근거와 경험적 적합성을 함께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년층은 성평등한 가사노동 환경을 선호하며(최선영, 이지혜, 윤태영, 2022), 이는 곧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 인식이 개인의 결혼 및 가족 형성과 같은 삶의 선택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구은정, 2019). 따라서 본 척도는 MZ세대의 평등지향적 태도와 현실적 기대를 반영하는 유효한 도구로서의 타당성을 가진다. 대표 문항은 “가사일은 가족들의 신체·정신적 안정을 위해

3) 독립적 자기개념(independent self-construal)은 타인과 구분되는 자율적 존재로서의 자아 인식을 의미한다(Markus & Kitayama, 1991).

4)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은 개인이 외적 통제 없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Ryan & Deci, 2000).

꼭 필요한 것이다.”(사회적 가치)이며, 원 척도의 문항 간 신뢰도(Cronbach's α)는 .86(남순환, 2002), 본 연구에서는 .80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태도

성역할 태도는 Martin과 Osmond(1975)가 개발한 성역할 태도 척도(Sex-Role Attitude)를 바탕으로 최정윤(1999)이 수정·보완한 한국어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정생활(6문항), 비가정생활(8문항), 고정관념(7문항), 사회변화(4문항)의 네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변화 요인이 시대적 적합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제외하고, 총 21문항을 최종적으로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에 대한 평등한 인식을 나타내도록 역채점을 실시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동의하지 않을수록, 즉 성별에 관계없이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인식을 지닐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 위한 방식이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은 각각 성역할 인식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 ‘가정생활’ 요인은 남성과 여성의 가정 내 역할 수행에 대한 고정된 기대를 반영하며, ‘비가정생활’ 요인은 직업, 교육, 정치 참여 등 공적 영역에서의 성역할 분리를 다룬다. ‘고정관념’ 요인은 성별에 따른 능력 차이, 감정 표현, 리더십 등에 대한 사회문화적 편견을 포함한다. 이들 하위요인은 모두 성별에 따른 역할 고정에 대한 수용 여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에서의 전통적 역할 분리에 대한 거부는 곧 성평등 지향적 태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척도는 신선

영·최윤경(2023)의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사용된 바 있다. 특히, MZ세대는 기존 세대에 비해 성역할에 대한 인식에서 탈전통적, 평등지향적 성향을 강하게 나타내는 세대적 특성을 지니며(진미정, 2021), 고정된 성별 역할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선택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성역할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본 척도는 MZ세대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유효한 도구로 판단된다. 대표 문항은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은 가능한 한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가정생활)이다. 원 척도의 문항 간 신뢰도(Cronbach's α)는 .89(Osmond & Martin, 1975), 국내 연구에서는 .84(신성영·최윤경, 2023), 본 연구에서는 .88로 확인되었다.

출산 의도

출산의도는 개인이 자녀를 가질 의지, 계획 및 행동 실행의 가능성을 반영하는 심리적 지표로, 본 연구에서는 총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미국 뉴욕 주 공인 심리전문가(Licensed Psychologist)이자 한국상담심리학회 1급 자격을 보유한 상담심리학 박사의 자문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출산의도를 구성하는 주요 심리적 요소인 ‘출산결심’, ‘출산노력’, ‘출산목표’로 구성된 출산의도의 다차원적인 측정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 문항인 “나는 자녀를 출산하기로 결심하였다.”는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 수준을 측정하며, 두 번째 문항 “나는 자녀 출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는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에서 제시된 행동 의도 개념에 근거하여 실제 행동 실행 가능성을 반영한다. 세 번째 문항 “나는 자

너 출산을 목표로 삼을 것이다.”는 장기적 계획 설정과 동기 부여 차원에서 출산이 개인의 삶 속에서 주요 목표로 인식되는지를 평가한다. 이러한 문항 구성은 기존 출산의도 연구에서 사용된 단순한 계획 유무나 긍정적 태도 중심의 평가와 달리, 출산결정의 심리적 준비성과 실천 가능성, 목표 인식까지 포함하는 다차원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기존 연구와 비교해볼 때, 박종서 외(2021)의 조사에서는 “앞으로 자녀를 낳을 계획입니까?”와 같은 단일 문항을 사용한 반면, 본 연구는 결심·노력·목표의 구분을 통해 보다 정교하게 측정하도록 척도를 설계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세 문항의 평균값을 최종 출산의도 점수로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출산의도가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의 출산의도의 문항 간 신뢰도(Cronbach's α)는 .88로 확인되었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개인주의 성향, 가사노동 가치관, 성역할 태도, 출산의도 변수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모든 변수의 왜도 절대값은 3 이하, 첨도 절대값은 8 이하로 자료는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한다(West et al., 1995).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개인주의 성향은 가사노동 가치관($r = .20$)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출산의도($r = .07$)와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가사노동 가치관은 출산의도($r = .23$)와 정적 상관을, 성역할 태도는

표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량 및 상관계수

	1	2	3	4
1. 개인주의적 성향	1			
2. 가사노동 가치관	.20**	1		
3. 성역할 태도	.11	-.08	1	
4. 출산의도	.07	.23**	-.15*	1
평균	2.95	3.49	3.80	3.28
표준편차	0.50	0.44	0.50	1.35
왜도	-0.07	-0.21	-0.78	-0.27
첨도	-0.02	0.90	-0.13	-1.19

주. * $p < .05$, ** $p < .01$, *** $p < .001$

출산의도($r = -.15$)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출산의도 형성에 있어 가사노동 가치관과 성역할 인식이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측정모형 검증

측정변인들이 각 잠재변인을 적절히 설명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의 측정모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chi^2 = 97.146$, $df = 38$, $p < .001$, $RMSEA = .081$, $GFI = .955$, $TLI = .935$, $NFI = .929$).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경로계수는 표 2에 제시한 것처럼 .338에서 .951($p < .001$)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측정은 다음과 같다. 개인주의 성향은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된 두 개의 문항 묶음으로 구성되었으며, 가사노동 가치관은 일반태도,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의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성역할 태도는 가정생활, 비가정생활, 고정관념에 관한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

표 2. 측정변인의 경로계수

잠재변인	측정변인	b	β	SE	C.R.
개인주의적 성향	개인주의1	1.000	.796		
	개인주의2	1.218	.951	.260	4.688***
가사노동 가치관	일반태도	1.000	.338		
	사회적가치	3.554	.803	.978	3.635***
	경제적가치	2.725	.588	.673	4.051***
성역할 태도	가정생활	1.000	.667		
	비가정생활	1.882	.898	.185	10.196***
	고정관념	1.496	.803	.145	10.303***
출산의도	출산결심	1.000	.944		
	출산노력	1.008	.946	.036	27.660***
	출산목표	.952	.879	.042	22.563***

주. *** p<.001.

성되었고, 출산의도는 출산결심, 출산노력, 출산목표에 대한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측정되었다.

구조모형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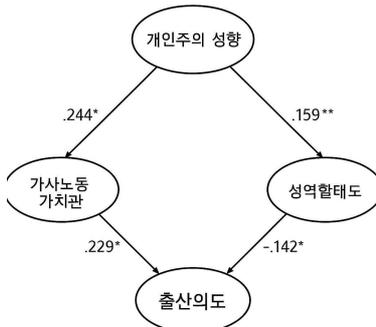
연구모형을 검증했을 때,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측정모형과 동일하게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chi^2 = 39$, $df = 15$, $p < .001$, CFI = .974, TLI = .964, RMSEA = .063, SRMR =

.051).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3과 그림 2에 제시한 것처럼 개인주의 성향은 가사노동 가치관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b = .123$, $\beta = .244$, $t = 2.160$, $p = .031$), 성역할 태도에도 정적인 영향($b = .231$, $\beta = .159$, $t = 2.703$, $p = .007$)을 미쳤다. 가사노동 가치관은 출산의도에 정적인 영향($b = .708$, $\beta = .229$, $t = 2.811$, $p = .005$)을 미쳤으며, 성역할 태도는 출산의도에 부적인 영향($b = -.541$, $\beta = -.142$, $t = -2.008$, $p = .045$)을 미친 것으로

표 3.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b	β	SE	C.R.
개인주의적 성향	-> 가사노동	.123	.244	.057	2.160*
	-> 성역할	.231	.159	.085	2.703**
가사노동 가치관	-> 출산의도	.708	.229	.252	2.811**
성역할 태도	-> 출산의도	-.541	-.142	.269	-2.008*

주. ** p<.01, * p<.05.



주. ** p<.01, * p<.05.
그림 2. 구조모형

나타났다.

매개효과 검증

개인주의 성향과 출산의도의 관계에서 가사노동 가치관과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팬텀변수를 생성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증을 실시하였다. 95% 신뢰구간에서 보다 정확한 신뢰구간 산출을 위하여 5,000번의 부트스트랩 표집으로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4와 같다(Hesterberg, 2015).

개인주의 성향이 출산의도에 미치는 간접효과 경로 중 가사노동 가치관을 매개로 하는 경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개인주의 성향 → 가사노동 가치

관 → 출산의도 경로의 간접효과는 $B = .164$, $p = .015$ 로 유의하였으며, 95% 신뢰구간 [.024, .461]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였다. 이는 개인주의 성향이 출산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가사노동 가치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식이 출산의도 형성에 있어 핵심적인 매개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출산을 제고를 위한 사회문화적 접근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반면, 성역할 태도를 매개로 한 간접경로는 구조모형 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트스트래핑 분석 결과 해당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러한 결과는 표본 내에서는 개인주의 성향이 성역할 태도를 통해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존재할 수 있으나, 표본 추출을 반복했을 때 해당 효과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낮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경로에 대한 해석에는 신중함이 요구되며, 성역할 태도가 매개효과를 가질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그 효과의 신뢰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큰 규모의 표본과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추가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표 4. 개인주의적 성향과 가사노동 가치관 · 성역할 태도 간접효과 Bootstrapping 검증 결과

	간접 효과 경로	B	P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개인주의적 성향	-> 성역할 태도	.066	.097	-.220	.009
	-> 가사노동 가치관	.164	.015	.024	.461

논 의

저출산 문제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위기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00년 1.48명, 2010년 1.23명으로 급감하였고, 2024년에는 0.75명까지 떨어지며 역사상 최저치를 경신하였다(국가지표체계, 2025).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인구통계학적 현상을 넘어, 가족관·노동환경·젠더 질서 등 사회 전반의 구조와 가치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복합적 현상임을 보여준다(김경희, 2012; 김진욱, 2005).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다각도로 시행해 왔다. 주요 정책은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등 재정적 지원과 함께 육아휴직, 돌봄서비스 확대 등 제도적 보안을 포함하였으나, 전반적인 출산율 반등 효과는 미미하였다(정성호, 2015). 이러한 결과는 출산을 경제적 보상과 행정적 서비스만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정책적 가정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주며, 단기적 인센티브가 아닌 개인의 내면적 동기와 가치관 변화에 주목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MZ세대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가사노동 가치관과 성역할 태도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MZ세대는 자율성과 자기실현을 중시하며 전통적 가족관에서 탈피하는 경향이 강한 세대로 출산의도가 기존 세대와는 다른 심리사회적 요인에 의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박혜숙, 2016; 김성엽 외, 2023). 이에 따라 단순한 인

과적 분석을 넘어서, 개인의 가치 인식이 출산 결정에 어떠한 간접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 결과, 개인주의적 성향이 출산의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문제 1). 이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자율성과 자기결정의 선호와 연결되어 출산을 기피하게 만든다는 사회적 통념에 도전하는 결과로, 출산의도는 단순한 가치 성향만으로 설명되기보다는 해당 가치가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의미로 해석되고 수용되는지를 통해 형성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삼식(2006)과 전은화(2014)는 자율성 중심의 삶의 태도가 출산율 저하와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이들 연구에서는 가치 성향과 행동 의도 간의 구조적 경로를 정량적으로 분리하여 검증하지는 않았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개인주의적 성향이 출산의도에 미치는 경로를 단계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출산의도가 단일한 가치 성향에 의해 일차원적으로 형성되기보다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해당 가치가 어떻게 해석되고 수용되는지를 통해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동일한 정보나 자극이라도 사회적 조건에서 더 강한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며, 개인의 판단 또한 사회적 공유와 해석의 방식에 따라 구조화된다는 기존 연구 결과(신홍임·김주영, 2018)와도 일치한다. 다시 말해, 개인주의적 성향이 출산 회피 태도를 직접적으로 유발하기보다는, 출산을 어떤 삶의 조건과 의미 속에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심리적 해석의 틀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은 출산의도가 인식, 정서, 태도 등 다양한 중간 요인을 매개로 형성된다는 진경선(2020)의 이론적 설명과도 맥을 같이한다.

특히, 본 연구는 개인주의 성향이 출산의도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 인식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연구문제 2). 이는 단순히 개인이 출산을 기피하거나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가사노동을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활동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출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문숙재, 1991; 박수미, 2008). 또한, 이러한 결과는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가 여성의 출산의도를 높인다고 본 조아라(2018), 은선경·박효진(2020)의 연구와 방향을 같이하며, 박수미(2008)가 제시한 가사분담의 공정성과 출산결정 간의 관련성도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가사노동의 가치 수용'이라는 인식이 출산의도 형성에서 핵심적인 심리적 매개기제로 작동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과 양육을 개인의 희생이 아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사회문화적 환경 조성이 출산 선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성역할 태도를 통한 간접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성역할 태도가 출산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게 부적인 방향으로 나타났다. 즉, 평등적 성역할 태도가 출산의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 기존 연구(정아름, 2018)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평등적 태도가 오히려 출산의도와 부적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Kato.T(2018)는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하게 내면화한 개인일수록 결혼과 자녀 출산에 대한 의지가 높게 나타난다고 분석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방향성을 보인다. 다시 말해, 성역할 태도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출산의도를 이해

하는 데 있어 보다 다각적인 심리사회적 관점의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주의 성향과 출산의도 간의 직접경로를 배제한 완전매개모형이 더 높은 설명력과 이론적 정합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연구문제 3). Schwartz(1992)는 가치 성향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심리적 태도 및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단일 경로로 연결되기보다는 개인이 내면화한 다양한 신념을 통해 조절된다고 주장하였다. Hayes(2018)는 매개변수를 포함한 분석 모형이 단순 회귀모형보다 인과구조를 더욱 정밀하게 설명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완전매개모형의 이론적 유용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류승아(2023)가 강조한 공동체심리학의 다차원적 접근과도 일치하는데, 개인의 가치 선택은 고립된 판단이 아니라 사회구조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심리적으로 조절되고 표현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기반 위에서 간접효과 중심의 구조모형을 실증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출산의도를 단일한 개인가치로 환원하기보다는 다단계의 가치 수용 과정을 반영하는 분석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는 출산을 제고를 위한 정책 설계에 있어 보다 정교한 심리사회적 개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위의 결과는 출산의도를 단순히 경제적 조건이나 제도적 자원의 문제로 환원해서는 안 되며, 개인이 내면화한 가족, 노동, 젠더에 대한 가치인식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출산 장려 정책은 보상 중심의 단기적 접근을 넘어, 성역할 고정관념을 해체하고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교육 및 문화적 개입이 병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초·중등 교육과정 내에 '생활 돌봄 교육'을 정규화하여, 청소년 시기부터 성

별에 관계없이 가사노동을 삶의 기본 기술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는 ‘가사노동 평등 캠페인’을 전개하여, 가사노동에 대한 공정한 인식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 또한, 남성의 가사노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용 교육 프로그램이나, 가사노동 참여를 경력의 일부로 인정하는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출산 이후의 삶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형성하고 육아에 대한 심리적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젠더 평등한 육아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 육아휴직제’를 활성화하고, 예비부모 또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육아 파트너십 교육’을 통해 역할 조율과 협업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아버지의 일상적 돌봄 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는 ‘아빠 돌봄 시간제’와 같은 정책은 남성의 육아 책임성을 높이고, 가정 내 역할 분담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다층적 접근은 단지 출산을 장려하는 수준을 넘어 자율성과 평등을 중시하는 MZ세대의 가치체계를 고려할 때, 이들이 경험하게 될 출산 이후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출산에 대한 심리적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다(Cho, 2021). MZ세대는 정책의 실제적 대상자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세대로, 이들의 가치 인식과 생활 양식을 정밀하게 반영하는 정책적 접근이야말로 장기적인 인구 전략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나아가, 출산과 양육의 전 과정을 온전히 개인의 책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여 전환하려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은 MZ세대의 가치 지향성과도 부합하며, 출산 기피 현상을 구조적으로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횡단적 설계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변수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에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시간에 따른 가치관 변화와 출산의도 간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성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가사노동 가치관의 매개 효과가 과대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성별 간 균형을 고려한 재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이 개인주의, 성역할, 가사노동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 자녀에 대한 기대나 태도, 취미시간 활용 방식 등 삶의 전반적인 가치지향과 생활양식을 반영할 수 있는 다층적 모형 구성이 요구된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미혼 MZ세대의 출산의도 형과정이 단순히 개인주의적 성향이라는 요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향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재해석과 수용을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합적 과정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는 향후 출산 정책이 단기적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개인의 가치 구조와 심리사회적 맥락을 포괄하는 정교한 접근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출산 이후 삶의 질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정책 설계의 중요한 과제로 요구될 것이다.

참고문헌

구은정 (2019). 일상생활에서 체현된 가사노동의 가치. *여성연구*, 102(3), 61-102.

- 국가지표체계 (2025). 합계출산율 추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김사현 (2015). 가족정책 지원유형에 따른 성 역할태도 변화: 현금, 시간, 서비스 지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2(1), 285-316.
- 김석호 (2022). 저출산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접근: 누가, 왜 결혼과 출산을 꿈꾸지 못하는가? *조사연구*, 23(2), 1-33.
- 김성엽, 이지혜, 전은정, 박성민 (2023). MZ세대의 결혼 및 출산 결정요인 실증연구: 청년패널조사를 활용한 성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35(3), 287-313.
- 김수정 (2019). 개인화 시대의 '개인주의'에 대한 개념적 탐색. *한국언론정보학보*, 94, 7-33.
- 김수정 (2022). 세대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베이비붐세대, X세대, 그리고 MZ세대 간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5(1), 29-58.
- 김일옥, 정구철 (2015). 결혼 인식도, 첫째 자녀 연령, 공동 양육 및 가사노동이 둘째 자녀 출산 의도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연구*, 10(3), 5-23.
- 김중인, 박범순 (2014). CSR 유형들이 기업평판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 개인주의 집단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광고학연구*, 25(7), 53-80.
- 김지영, 윤태환 (2017). 관리자 리더십 유형이 조직원의 집단주의 및 개인주의 성향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카지노산업의 여성인력을 중심으로. *동북아관광연구*, 13(1), 243-260.
- 김진욱 (2005). 근로기혼여성의 이중노동부담에 관한 실증연구: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협조적 적응, 이중노동부담, 적응체계 가설의 검증. *한국사회복지학*, 57(3), 51-72.
- 김진현 (2020). 양성평등적 성역할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인식이 여성들의 출산경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32(2), 180-208.
- 김해진, 이동훈 (2021). 한국인의 세대별 문화성향 차이와 대인간 의사소통능력의 특성. *사회과학연구*, 60(3), 455-480.
- 김형석(2022). '돈줄' 구매 및 불매 소비 행동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지식정보기술과 시스템 저널*, 17(1), 43-54.
- 남순환 (2002).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인식과 직업의식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상미 (2015). 기혼여성의 출산의도 및 출산 행동 결정요인: 여성가족패널 종단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라미진 (2022). 개인주의 성향과 자기효능감이 역할 외 행동에 미치는 영향: 직급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35(9), 1719-1740.
- 류승아 (2023). 현대 한국사회에서 공동체심리학의 방향: 공동체심리학의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9(4), 637 - 655.
- 문숙재 (1991). 가사노동의 가치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285-302.
- 문숙재, 윤소영 (1997). 가사노동의 정책적 반영을 위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41-52.
- 박수미 (2008). 둘째 출산 계획의 결정요인과 가족 내 성 형평성. *한국인구학*, 31(1), 55-73.
- 박순형 (2022). MZ세대의 특성과 언어 사용 연구. *한말연구*, 63(18), 1-23.

- 박중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조성호, 최선영, 이혜정, 송지은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21-50.
- 박혜경, 김상아 (2018). 한국인의 문화성향에 관한 메타분석: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 42(3), 5-37.
- 박혜숙 (2016). 신세대 특성과 라이프스타일 연구-Z세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7(6), 753-767.
- 백주희 (2009).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변인: 국제비교 분석. *가정과삶의질연구*, 27(3), 239-252.
- 변두영 (2015). 기혼남녀의 출산의도 영향 요인 분석: 계획된 행동이론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정희, 김찬석, 이현선 (2021). MZ세대의 커뮤니케이션 고유 특성에 대한 각 세대별 반응 연구 - MZ세대, X세대, 베이비붐세대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77, 203-216.
- 신성영, 최윤경 (2023). 성역할 및 성차별 태도 그리고 성별이 젠더혐오 주의편향에 미치는 영향. *젠더와 문화*, 16(2), 121-157.
- 신윤정, 이명진, 전광희, 문승현 (2020). 출산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37.
- 신윤정, 계봉오, 김근태, 유삼현, 박수빈, 김보름 (2023).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주요 국가의 출산율 변동과 정책적 대응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23-11.
- 신홍임, 김주영 (2018). 사회적 관계가 개인의 정보처리와 정서경험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1), 29-47.
- 윤숙현, 문숙재 (1997). 가사노동에 관한 인식의 변화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3), 153-161.
- 은선경, 박효진 (2020).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1(4), 210-217.
- 이경숙, 정석진, 박진아, 신의진 (2009). 저출산에 대한 여대생의 인식 및 심리적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1), 93-108.
- 이명진 (2023). 사회심리학적 요인이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TDIB 모형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5(2), 141-166.
- 이보라 (2020).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16, 167-188
- 이삼식 (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26(2), 95-140.
- 이윤주 (2018). 성인이행기와 관련된 지위의 변화가 청년 남녀의 성역할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30(2), 105-128.
- 이수민, 조성봉 (2024). 미혼남녀의 결혼 및 자녀가치관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유형 분석: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와의 관련 및 결혼의향 차이 탐색. *가족과 가족치료*, 32(3), 391-420.
- 이순미, 김혜경 (2008). 부부간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공평성 인지의 영향요인 연구: 기혼 취업여성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0(1), 1-25.
- 이지영 (2021). 가사노동·돌봄노동 분담과 성역할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은정, 홍백의 (2019). 한국 기혼 부부의 가사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부의 성역할태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6(4),

- 41-64.
- 장승희. (2014). 한국의 저출산 요인과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경영연구*, 1(2), 1-21.
- 장윤옥 (1992). 교직주부에 있어서 가족생활주기 및 가사노동가치인식이 시간제약지각 및 역할갈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0(3), 325-345.
- 장한나, 이명석 (2013). 기혼 직장여성의 출산 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1(4), 425-438.
- 전은화 (2014). 기혼맞벌이여성의 출산의도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18(3), 325-350.
- 정성호 (2015). 저출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인구학*, 38(2), 113-134.
- 정아름 (2018). 기혼여성의 청소년기 가정환경 요인, 가족가치관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과학연구*, 37(3), 147-174.
- 조성호, 변수정, 김문길, 김지민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26.
- 조아라 (2018).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와 출산에 영향 미치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경선 (2020). 미혼 성인의 애착,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6(4), 479-499.
- 진미정 (2021). MZ세대의 결혼·출산 가치관: 밀레니얼세대를 중심으로. *청주복지 인사이트*, 10, 23-29
- 차성란 (1997). 남녀 대학생들의 가사노동 부담 의식에 관한 연구: 대전지역 5개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생활연구*, 6, 1-18.
- 최보람 (2021). 취업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요인.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선영, 이지혜, 윤탈영 (2022). 가족형성과 사회불평등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22-26.
- 최재정(2022). Z세대의 '플렉스' 문화의 이해: Z. 바우만의 '소비' 개념을 중심으로. *교육철학연구*, 44(1), 139-159.
- 최정윤 (1999). 성평등적인 사회과 학습자료가 학생들의 성역할 태도에 미치는 효과. *사회과학교육*, 3(1), 139-176.
- 최창호, 유연우 (2017).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의 비교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5(10), 103-111.
- 최효미, 유해미, 김지현, 김태우 (2016). 청년층의 비혼에 대한 인식과 저출산 대응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16-19.
- 통계청 (2020). 가사노동시간 지표누리. 통계청.
- 통계청 (2023). 2022년 신혼부부 통계. 통계청.
- 통계청 (2024a). 2023년 출생통계. 통계청.
- 통계청 (2024b). 청년층 사회조사 결과. 통계청.
- 통계청 (2025). 2024년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 한유화, 정진경 (2007).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 개인주의적 및 집단주의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117-131.
- 황동진 (2020). 한국의 성역할 이데올로기 변화에 관한 연구-다차원적(multidimensional) 접근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jzen, I., & Klobas, J. (2013). Fertility intentions: An approach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Demographic Research*, 29, 203-232.

- <https://doi.org/10.4054/DemRes.2013.29.8>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Beutler, I. F., & Owen, A. J. (1980). A home production activity model.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9*(1), 16-26.
<https://doi.org/10.1177/1077727X8000900102>
- Bianchi, S. M., Milkie, M. A., Sayer, L. C., & Robinson, J. P. (2000). Is anyone doing the housework? Trends in the gender division of household labor. *Social Forces, 79*(1), 191-228.
<https://doi.org/10.2307/2675569>
- Blee, K. M., & Tickamyer, A. R. (1995). Racial differences in men's attitudes about women's gender ro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1), 21-30.
<https://doi.org/10.2307/353813>
- Brooks, C., & Bolzendahl, C. (2004). The transformation of US gender role attitudes: Cohort replacement, social structural change, and ideological learning. *Social Science Research, 33*(1), 106-133.
[https://doi.org/10.1016/S0049-089X\(03\)00041-3](https://doi.org/10.1016/S0049-089X(03)00041-3)
- Chadeau, A. (1985). Measuring household activities: Some international comparison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31*(3), 237-253.
<https://doi.org/10.1111/j.1475-4991.1985.tb00511.x>
- Cho, K. A. (2021). Korea's low birth rate issue and policy direction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7*(1), 6-9.
<https://doi.org/10.4069/kjwhn.2021.02.16>
- Davis, S. N., & Greenstein, T. N. (2004). Cross-national variations in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5), 1260-1271.
<https://doi.org/10.1111/j.0022-2445.2004.00091.x>
- Eagly, A. H., & Wood, W. (2012). Social role theory. In P. A. M. Van Lange, A. W. Kruglanski, & E. T. Higgins (Eds.), *Handbook of theories of social psychology, 2*(9), 458-476. SAGE Publications.
<https://doi.org/10.4135/9781446249222.n49>
- Gibbons, J. L., Hamby, B. A., & Dennis, W. D. (1997). Researching gender-role ideologies internationally and cross culturally.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1), 151-170.
<https://doi.org/10.1111/j.1471-6402.1997.tb00107.x>
- Harris, R. J., & Firestone, J. M. (1998). Changes in predictors of gender-role ideologies among women: A multivariate analysis. *Sex Roles, 38*(3), 239-252.
<https://doi.org/10.1023/A:1018785100469>
- Hayes, A. F. (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2nd ed.). The Guilford Press.
- Hesterberg, T. C. (2015). What teachers should know about the bootstrap: Resampling in the undergraduate statistics curriculum. *The American Statistician, 69*(4), 371-386.
<https://doi.org/10.1080/00031305.2015.1089789>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 Sage.
- Kantner, J. F., & Whelpton, P. K. (1952). Social and psychological factors affecting fertility. *The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30(1), 41-70.
- Kato, T. (2018). Associations of gender role attitudes with fertility intentions: A Japanese population-based study on single men and women of reproductive ages. *Sexual & Reproductive Healthcare*, 16, 15-22.
<https://doi.org/10.1016/j.srhc.2018.01.002>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https://doi.org/10.1037/0033-295X.98.2.224>
- Martin, C. L., & Osmond, M. W. (1975). Measuring sex-role attitudes: A review and critique. *Psychological Bulletin*, 82(9), 573-588. <https://doi.org/10.1037/h0077044>
- Moza, D., Lawrie, S. I., Maricuțoiu, L. P., Gavreliuc, A., & Kim, H. S. (2021). Not all forms of independence are created equal: Only being independent the “right way” is associated with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Frontiers in Psychology*, 11, 606354.
<https://doi.org/10.3389/fpsyg.2020.606354>
- OECD (2024). Society at a glance 2024: Korea country note. OECD Publishing.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24/06/society-at-a-glance-2024-country-notes_d98f4d80/korea_5c43a214/eca0a44d-en.pdf
- Philipov, D. (2009). Fertility intentions and outcomes: The role of policies to close the gap.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5(4), 355-361.
<https://doi.org/10.1007/s10680-009-9202-1>
- Prensky, M. (2001).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 *On the Horizon*, 9(5), 1-6.
<https://doi.org/10.1108/10748120110424816>
- Reid, M. G. (1934). Economics of household production.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 Rice, T. W., & Coates, D. L. (1995). Gender role attitudes in the southern United States. *Gender & Society*, 9(6), 744-756.
<https://doi.org/10.1177/089124395009006007>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https://doi.org/10.1037/0003-066X.55.1.68>
- Sadiku, M. N. O., Shadare, A. E., & Musa, S. M. (2017). Digital natives.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Research in Computer Science and Software Engineering*, 7(7), 125-126.
<https://doi.org/10.23956/ijarcsse.v7i7.111>
- Sandu, M. L., Rus, M., & Pruteanu, L. (2020). Social perception about birth as a demographic phenomenon. *Technium Social Sciences Journal*, 4(1), 135-147.
<https://doi.org/10.47577/tssj.v4i1.197>
- Schoen, R., Astone, N. M., Kim, Y. J., & Nathanson, C. A. (1999). Do fertility intentions affect fertility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3), 790-799.
<https://doi.org/10.2307/353578>
- Schwartz, S. H. (1992).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5, 1-65.
[https://doi.org/10.1016/S0065-2601\(08\)60281-6](https://doi.org/10.1016/S0065-2601(08)60281-6)
- Shim, T. Y., Kim, M.-S., & Martin, J. N. (2008). *Changing Korea: Understanding culture and communication*. Peter Lang.
- Song, J. E., Ahn, J. A., Lee, S. K., & Roh, E. H. (2018). Factors related to low birth rate among married women in Korea. *PLOS ONE*, 13(3), Article e0194597.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194597>
- Spence, J. T., Helmreich, R. L., & Stapp, J. (1982). Gender-role attitudes and participation in competitive activities of college wome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8(3), 459-465.
<https://doi.org/10.1177/0146167282083015>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Westview Press.
<https://doi.org/10.4324/9780429499845>
- Twenge, J. M., & Campbell, S. M. (2008). Generational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traits and their impact on the workplace.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3(8), 862-877.
<https://doi.org/10.1108/02683940810904367>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SAGE Publications.
- 논문 투고일 : 2025. 04. 15
1 차 심사일 : 2025. 05. 26
게재 확정일 : 2025. 06. 26

The Effect of Individualistic Tendency of the MZ Generation on Fertility intentions: Mediating effect on Housework Values and Gender Role Attitudes

Myoeng Young Jeong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individualistic orientation on fertility intention among 237 unmarried members of the MZ generation in South Korea, using a self-administered survey, and assessed the mediating roles of attitudes toward household labor and gender role attitud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was employ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among individualistic orientation, household labor attitudes, gender role attitudes, and fertility intention. The results revealed that individualistic orientation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on fertility intention but exerted an indirect effect through household labor attitudes. This suggests that perceiving household labor as a meaningful and valuable activity can positively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fertility intentions. The findings further indicate that fertility intentions are influenced less by surface-level value changes, such as individualism, and more by fundamental sociocultural perceptions, particularly those related to household labor. Therefore, policies aimed at increasing fertility rates should focus not on surface-level values but on the psychosocial factors mediating their influence, thereby requiring both structural interventions and institutional support.

Key words : MZ generation, individualistic tendencies, fertility intentions, housework values, gender role attitudes